



김민철 : 넥센 → kt 손준인 : LG → 삼성 이병규 : LG → 롯데 고효준 : KIA → 롯데 허도환 : 한화 → SK

LG는 유망주·롯데 즉시전력·kt 좌완에 올인

방향성으로 본 구단들의 선택

LG, 성장 어려운 전력을 과감히 정리
롯데, 고효준·이병규 등 즉시전력 영입
SK, 투수로 키우려 야수 감지광 지명
구단들, 구필·제대 예정 선수에 가중치

KBO의 대이동이 벌어졌다. 22일 서울 덕계 이호텔에서 열린 '2017 KBO 2차 드래프트' 결과 총 26명의 선수들이 팀을 옮겼다. 2차 드래프트는 1라운드 3억원, 2라운드 2억원, 3라운드 1억원의 보상금만 원 소속팀에 내주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다. 올해 2차 드래프트의 가장 큰 특징은 군 보류선수를 지명할 수 있었던 점이다. 또 특정구단이 뺏길 수 있는 선수 최대숫자를 5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 2차 드래프트의 속성상,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 어렵다. 10개 구단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구했다고 봐야 한다.

●LG와 롯데의 상반된 방향성

모 구단 관계자는 "2차 드래프트는 LG의 의도대로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명도는 있어도 더 이상의 성장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선수들(손준인 백창수 유원상 이병규)을 최대한(4명) 넘겼고, 그 대신 유망주(이진석 장시윤 신민재)를 받아들였다. 이진석은 경찰청

2017 KBO 2차 드래프트 결과

구단	라운드	지명선수	포지션	원 소속팀	구단	라운드	지명선수	포지션	원 소속팀
kt	1	조현우	투수	롯데	SK	1	강지광	외야수	넥센
	2	김민철	투수	넥센		2	김주은	투수	삼성
	3	김용주	투수	한화		3	허도환	포수	한화
삼성	1	이성곤	외야수	두산	NC	1	유원상	투수	LG
	2	손준인	내야수	LG		2	김진태	투수	넥센
	3	박세웅	투수	SK		3	박진우	투수	두산
한화	1	문동욱	투수	롯데	롯데	1	고효준	투수	KIA
	2	백창수	외야수	LG		2	이병규	외야수	LG
	3	김지수	외야수	롯데		3	오현택	투수	두산
넥센	1	-	-	-	두산	1	최대성	투수	kt
	2	-	-	-		2	김도현	외야수	SK
	3	-	-	-		3	-	-	-
LG	1	이진석	외야수	SK	KIA	1	최정용	내야수	SK
	2	장시윤	내야수	넥센		2	황윤호	내야수	NC
	3	신민재	내야수	두산		3	유민상	내야수	kt

*지명순서는 1-3라운드 모두 2017시즌 성적 역순. *넥센은 지명권 전체, 두산은 3라운드 포기.

에 입대 중임에도 1라운드에서 뽑았다. 반면 롯데는 즉시전력감 위주로 접근했다. 고효준, 이병규, 오현택을 뽑았다. 롯데는 "이병규 외에 왼손 불펜이 거의 없다. 김용영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좌완 고효준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배재호 외에 사이드암 자원이 빈약한 환경도 오현택 지명을 불렀다. 좌파 외야수 이병규도 한 때 수준급 실력을 자랑했던 선수라 외야 자원 강화 차원에서 뽑았다. 롯데는 대신 조현우(kt), 문동욱(한화) 등 영권투수를 1라운드에서 뺏겼다.

●kt, 좌완투수만 뽑았다

kt는 목표를 확실히 잡고 임했다. 전체 1순위 픽으로 좌완 조현우를 선택했다. 이어 김민철과 김용주까지 3명 모두 좌완투수였다. 조현우는 원래 kt 지명을 받고 KBO에 들어온 투수였다. 2015년 박세웅(롯데)과 장성우(kt)가 포함된 kt와 롯데의 '빅딜' 당시, 조현우도 이적했다. 롯데는 조현우를 바로 경찰청으로 보냈다. 2018년 2월 군 제대를 앞둔 시점에서 kt가 재영입을 한 것이다. kt는 "삼재민, 정성근, 박세진 외에 왼손선발이 딱히 없다. 불펜진에도 홍성용

정도"라고 좌완 수집 이유를 말했다. 특히 조현우에 대해 "트레이드 당시 우리가 정말 넘겨주기 싫은 선수였다"고 덧붙였다. kt 내부 평가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SK, 외야수 감지광이 아닌 투수 감지광 선택

SK는 1라운드에서 넥센 외야수 감지광을 호명했다. 그러나 SK는 "감지광을 투수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넥센 감독 출신인 SK 영업 담당과 손혁 투수코치가 불펜투수로서 감지광의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2차 드래프트에서 포수로서 유일하게 허도환이 SK의 지명을 받았다. 이흥구가 상무에 입단한다면, SK 포수는 이재원과 이상우만 남는다. 제3의 포수로서 허도환의 쓰임새를 본 것이다.

●2차 드래프트의 난해함

군 보류선수가 드래프트 대상에 포함되자 40인 보호선수를 짜기가 훨씬 힘들어졌다. 상당수 구단들이 군필 선수나 제대를 앞두고 있는 선수에 가중치를 뒀다. 왜냐하면 2차 드래프트는 2년마다 열린다. 갓 입대만 선수 혹은 미필 선수를 뽑아봤자 즉시전력이 될 확률이 떨어진다. 2년 후에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 변변히 써 보지도 못하고 뺏길 수 있다. 미리 군대만 보내 놓고 뺏기면 남 좋은 일만 해주기 딱 좋다. 챙겨야 할 변수가 많아져 구단들은 "이번 2차 드래프트는 유난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같은 날 이적한 유원상-유민상 형제

2차 드래프트 사연 많은 그들

고효준 15년만에 친정팀 롯데 복귀
김민철, 두산·넥센 거쳐 kt에 등지

프로 2년차 이하 선수들이 자동보호로 묶인 '2017 KBO 2차 드래프트'는 예상대로 즉시전력감 증과참담 선수들의 대거이동으로 막을 내렸다. 22일 서울 서초구 덕계이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선 모두 26명의 선수가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그 가운데는 곡절 많은 선수들도 눈에 띈다.

투수 유원상(31)·내야수 유민상(28) 형제는 '같은 날 이적'이라는 운명을 맞이했다. 유원상은 1라운드 7순위로 LG에서 NC, 유민상은 3라운드 10순위로 kt에서 KIA로 옮겼다. 2006년

한화 소속으로 프로에 데뷔한 유원상은 2013년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한 수준급 불펜투수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부진에 빠져 올해는 6경기 등판(타율 6.14)이 고작이다. 2012년 두산에 입단했던 유민상은 kt로 이적한 2016년 9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2, 4홈런, 37타점으로 1군 불박이가 되는 듯했으나 올해 경쟁에서 밀려 15경기 출장(타율 0.233·1홈런·2타점)에 그쳤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형제가 나란히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KIA를 떠나 롯데로 옮긴 투수 고효준(34), 넥센에서 kt로 소속이 바뀐 투수 김민철(31)도 눈길을 끈다. 좌완 불펜요원인 고효준은 15년 만에 친정팀으로 복귀했다. 2002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6순위로 롯데에 지명된 뒤 2004년 SK, 2016년 KIA로 이적했다. 올



유원상

해 40경기에서 3승1패4홀드, 방어율 4.28로 KIA의 정규시즌 우승에 일조했다. 2005년 두산 유니폼을 입고 데뷔한 김민철은 한때 촉망받는 좌완 선발투수였다. 두산 소속이던



유민상

2009년 7승(2패·방어율 4.43)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듯했으나, 2010년 넥센으로 이적한 뒤에는 정체를 모습을 보였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유망주 육성” 한명도 뽑지 않은 넥센

4명 내주고 9억 벌었지만 지명 포기
고효욱 단장 “매 맞을 각오까지 했다”

"여론의 매를 맞을 각오도 했습니다." 넥센은 22일 서울 서초구 덕계이호텔에서 열린 '2017 KBO 2차 드래프트'에서 단 한 명의 선수도 지명하지 않았다. 2차 드래프트를 처음 시행한 2011년부터 단 한 명의 선수도 지명하지 않은 사례가 총 두 차례인데,

2011년과 올해의 넥센이 그랬다. 특히 넥센은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 감지광(SK)과 김민철(kt), 김진태(NC), 장시윤(LG) 등 4명의 선수가 팀을 떠났다. 4명 선수를 내주며 총 9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넥센은 지명 권리는 포기하면서 선수 보강은 단 한명도 하지 않았다.

넥센은 육성기초가 확실한 팀이다. 프리에이전트(FTA) 영입 등에 거액을 투자하기보다 젊은 선수를 제대로 키워서 쓴다는 철학이 확실하다. 넥센이 밝힌 올해 2차 드래프트 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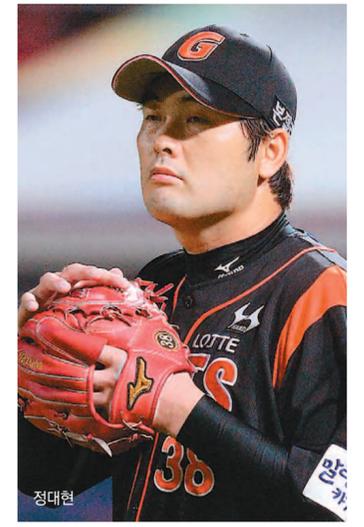
명의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다. 넥센 고효욱 단장은 2차 드래프트 직후 통화에서 "이번 드래프트에 나온 선수 명단을 보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며 "우리 팀에 유망주가 많고, 올 시즌 중 트레이드를 통해 보강한 자원도 있다. 기존의 선수들로 2018시즌을 대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차 드래프트는 기존의 팀에서 출전기회가 적었던 선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넥센의 미지명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크다. 고 단장이 "매를 맞을 각오였다"고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장석 구단주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12월 8일 선고

공판을 앞둔 점이 선수 지명을 망설이게 했다는 시선도 있다. 이 구단주는 6일 서울지방법원 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고 단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며 "구단의 방향이 기존 젊은 선수들을 키우는 것이다. 2018시즌의 계획도 이미 다 세웠다"고 밝혔다. 덧붙여 "4명이 팀을 떠나게 돼 아쉽다. 활용도가 높은 선수들이었다. 하지만 계획 없이 보호선수를 정하지 않았다. 우리 팀에서 자리 잡기 어렵다면 타 구단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베이징 올림픽 金 영웅 롯데 정대현 현역 은퇴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영웅이자 KBO 역사상 최고의 잠수함투수로 꼽히는 롯데 정대현(39)이 은퇴한다. 복수의 야구계 관계자는 22일 "정대현이 롯데 구단에 은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대현의 은퇴는 22일 열린 2차 드래프트 회의를 통해 사실상 공식화됐다. 한 야구계 인사는 "롯데가 드래프트가 열리기 직전, 정대현의 상황을 타 구단들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서 롯데와 9개 구단이 정대현을 지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현은 2001년 SK에 입단한 이래 2016시즌까지 662경기에 등판했다. 726.1이닝을 던져 46승29패 121홀드 106세이브를 기록했다. 100홀드-100세이브를 모두 달성한 당대 최고의 불펜투수로 군림했다. 통산 방어율이 2.21일 정도로 난공불락의 구위를 자랑했다.

정대현의 위력은 국제전에서 더 빛을 발했다. 아마추어 시절이었던 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동메달을 시작으로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2009년 WBC 준우승,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5년 프리미어12 우승 등 한국 야구의 빛나는 순간마다 정대현의 피칭이 있었다.

특히 2008년 베이징올림픽 결승전 쿠바전은 정대현 야구인생의 압권이었다. 9회 1사 만루의 절체절명 위기를 막아내며 한국의 금메달을 확정짓는 세이브 투수가 정대현이었다.

정대현은 프리에이전트(FTA) 자격을 얻은 2011시즌 직후 메이저리그 도전을 시도했다. 볼티모어 입단 작전까지 협상이 이뤄졌으나 건강 문제로 무산됐다. 이후 롯데와 전격 4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돌보이는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2017시즌은 채 1경기도 1군에서 던지지 못하고 은퇴에 이르렀다.

김영준 기자

한화 이창열, 미야자키서 성추행 혐의 체포

'산케이스포츠' 등 일본 현지언론은 22일 '미야자키 마루리캡에서 훈련 중인 한화 내야수 이창열(26)이 성추행 혐의로 현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창열은 캡트 초반인 2일 훈련을 마친 뒤 미야자키 시내의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에서 20대 여성 점원을 억지로 껴안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사건 다음날(3일) 경찰에 "업무 도중 피해를 입었다"고 알렸고, 경찰은 현장 CCTV 화면을 확인한 뒤 이창열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창열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야자키 현지에 머물고 있는 한화 구단관계자는 "이창열이(22일) 오후 4시부터 미야자키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현지 변호사를 선임했다. 일단 조사 결과를 기다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넥센, 외국인선수 3명과 계약 완료

넥센은 22일 "투수 제이코 브리검과 총액 65만 달러(약 7억1000만원), 외야수 마이클 초이스와 60만 달러(약 6억5000만원)에 2018시즌 계약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넥센은 10월 26일 총액 150만 달러에 계약한 에스킬 로저스와 브리검, 초이스로 2018시즌 외국인선수 구성을 일찌감치 마쳤다.

KBO 홍보팀 손이륙씨 25일 결혼

KBO 홍보팀 손이륙 사원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동갑내기 신부 서은혜 씨와 결혼식을 올린다.

편집 | 인도영 기자 do02@donga.com